

광주청년센터 10주년…姜시장 “청년들 기댈 언덕될 것”

시청서 지역 청년과 미니토크쇼

SNS 오픈채팅방 즉문즉답 형식

지속가능 청년정책 생태계 확산

“광주시의 1년치 청년예산 3천억원을 한곳에 쓸 수 있도록 광주청년시청 조직을 만들면 어떨까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역 청년들과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 시장은 지난 27일 시청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열린 ‘광주청년센터 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미니토크쇼를 개최했다.

강 시장은 “청년들의 상상에서 출발한 아이디어가 정책화될 때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년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청년들의 든든한 기대를 얻으려 되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토크쇼는 광주 청년정책의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기존의 딱딱한 정책 설명회를 벗어나 청년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시장이 직접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7일 시청 1층 열린문화공간에서 열린 ‘광주청년센터 개관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듣고 답하는 소통형 자리로 기획됐다.

특히 이날 미니토크쇼는 기념식에 참석한 청년들이 즉석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질문을 하고 허심탄회하게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청년센터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청

년과 함께한 10년 그리고…’라는 주제로 열렸다.

10년 간 광주 청년정책의 중간지원조직으로 정책을 수행한 광주청년센터를 돌아보고 참여

하며 앞으로의 10년을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 지역 청년 유관기관, 청년활동가, 타 시·도 청년센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청년센터 10주년 기념 영상 시청, 역대 청년센터장 축하 메시지, 10주년 축하기념패 전달, 미니토크쇼, 비전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향후 운영 방향을 담은 비전 발표를 통해 청년과 지역·유관기관 간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청년정책 생태계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행사에 앞서 ‘10년의 여정, 광주청년센터의 내일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청년센터의 역할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도 열렸다. 중앙청년재단, 광주연구원, 대구청년센터, 광주시, 청년활동가 등 전국 청년 관련 기관과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편, 광주청년센터는 2015년 금남지하상가에서 ‘광주청년센터 the 숲’이라는 이름으로 개소한 이후 현재 동구 본점과 서구 토닥토닥 카페 등 2개소를 운영 중이다.

청년정책을 홍보하고 연구하며 지역 청년의 일상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국무조정실이 지정한 광역청년지원센터로서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변은진 기자

전남도 개청 이래 첫 ‘여성 비서실장’ 선임

박희경 과장 임명…4급 이상 인사

안상현 부시장 2급 안전실장 승진

전남도 개청 이래 처음으로 여성 비서실장이 선임됐다.

앞서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첫 여성 인사국장이 임명되는 등 민선 8기 들어 전남도 여성 공무원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7월1일자로 안상현 나주부시장을 2급(이사관)으로 승진 발령하는 등 4급 이상 6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 인사 명단 18면

안 부시장은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换了을 겪었고, 강영구 도민안전실장은 전남연구원으로 파

견됐다.

김정섭 서기관이 3급(부이사관)으로 승진해 환경산업국장에 임명되는 등 6명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김기홍 광양부시장은 전략산업국장으로, 정현구 무안군수는 에너지산업국장으로, 정광선 담당부군수가 보건복지국장으로 각각 자리 를 옮겼다.

이상진 목포부시장은 행정안전부로, 조석훈 기획관은 목포부시장으로,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은 나주부시장으로, 김정완 광양청 투자유치본부장은 광양부시장으로 전출됐다.

조대정 고흥군수가 정책기획관으로, 윤연화 인재개발원장이 인구청년이민국장으로, 박종필 환경산업국장이 인재개발원장으로, 소영

호 전략산업국장이 전남개발공사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이번 인사에서는 박희경(53) 인구정책과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눈길을 끌고 있다. 여성 비서실장은 관선·민선을 통틀어 전남도 개청 이후 최초다.

고흥 출신인 박 비서실장은 문화정책팀장·홍보기획팀장을 거쳐 인구정책과장으로 근무해 왔으며 정책 역량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전남도의 설명이다.

올해 1월 인사에서도 고마경 부이사관이 자치행정국장을 맡아 사상 첫 여성 인사국장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전남도는 5급 팀장급 이하 인사를 오는 7월25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장애인가정 홈헬퍼 종사자 전문성 강화

전남도, 실무 중심 역량 보수교육

전남도는 지난 27일 전남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가정 홈헬퍼 서비스 수행기관 종사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출산·양육 지원 돌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실무 중심 보수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김세루 광주대 교수의 영유아 성장 발달 이해, 최명근 전남대병원 교수의 여성 장애인 임신기 건강관리, 김아랑 전남대병원 영양사의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등 실무 중

심의 강의와 실습이 진행돼 교육 참가자의 돌봄 역량을 높였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선도적으로 홈헬퍼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사업비 6억9천700만원을 투입, 전남 8개 수행기관에서 40명의 홈헬퍼가 1대1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정 기자

과기 2차관 류제명·복지 2차관 이형훈

〈고흥출신〉

법무 이진수·국토1 이상경·산업2 이호현



은 행장 이 이름을 올렸다.

이 형 훈 차관에 대해서는 “의료 대 란을

조속히 해결하고 치밀한 기획력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회복과 정상화를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차관에 이진수(서울)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이호현(강원)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이,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이상경(경북) 가천대 도시계획 조경학부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김진수 기자

▶ 1면 ‘6개 부처 장관 인선’서 계속

접수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급인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김경수(경남) 전 경남지사, 국정원 1차장은 이동수(전북) 국정원 해외정보국 단장, 국정원 2차장은 김호홍(충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을 각각 임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봉우 민정수석과 전성환 경제통합수석도 이날 임명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유임됐다.

광주매일신문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



광주역앞 중흥6거리코너(중흥동712-14외2)
대형빌딩 상업지628평 지하4층지상10층
건평344평 연건평3,778평 승강기3대 주차150대
금매220억(조정가능)
공공기관, 의료시설, 쇼핑센터등
무슨 업종이던 좋은 위치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받아 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